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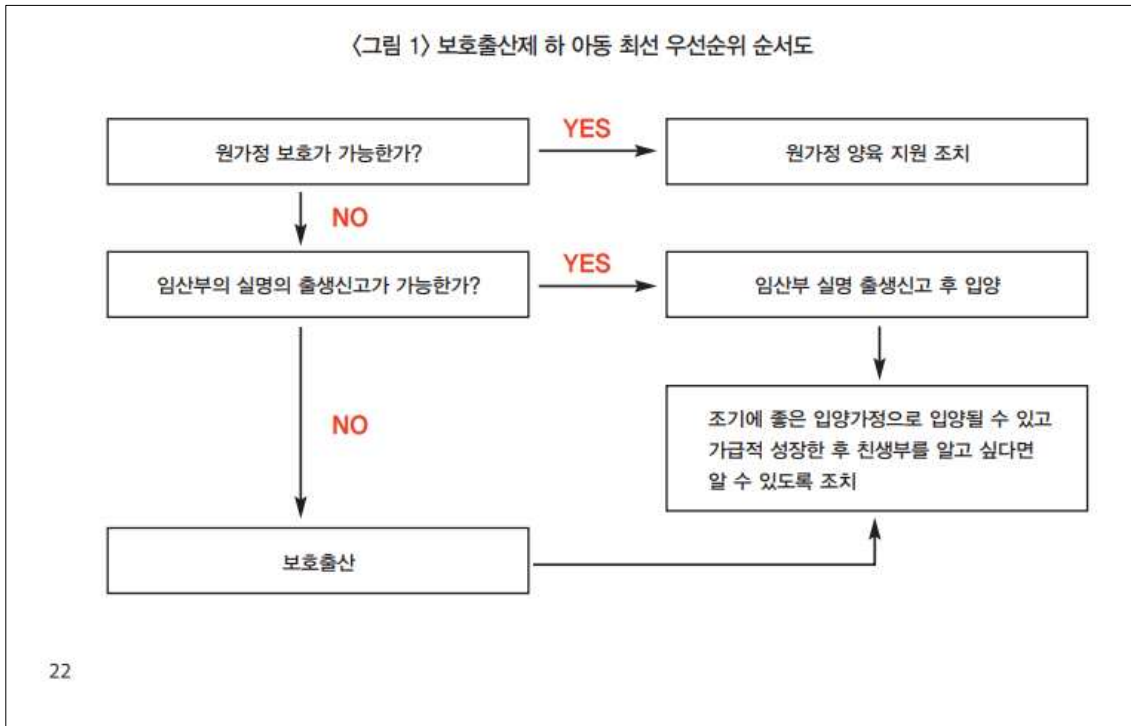
토론문

박성민(변호사, 법학박사)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4. 7. 19., 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제정)으로 입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이 법의 목적을 분설하면, 첫째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합니다. 둘째, 태아¹⁾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합니다. 셋째,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보호출산이란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신 중 여성이 법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신청을 하여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출산제는 그 자체로 가장 좋은 제도라서 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나라 베이비박스가 그 자체로 가장 좋은 것이 아니지만 기존의 법과 제도에서 없는 사람 취급하고 설령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외면했던 위기에 처한 생모들과 아기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을 하면서 익명을 간절히 원하는 생모들과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아기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외면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베이비박스는 국가와 법이 외면하고 없는 사람 취급한 생모들과 아기들을 보호해왔습니다. 우리나라 베이비박스의 특징은 아기의 생명을 구하는 데에서 나아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러 온 생모를 만나서 상담하고 직접 양육할 것을 설득, 지원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베이비박스의 운영 원칙을 보호출산제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순서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공해드린 자료의 22페이지 표시된 면에 있는 것을 발췌한 것입니다.

-
- 1) 태아와 출생한 사람은 생명의 연속적인 발달과정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의 정도나 생명 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태아 역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됩니다. 법은 태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청주복지포럼 가을호 22면에서 발췌]

보호출산제는 위 순서도에서 가급적 YES를 늘리고 NO를 줄일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선순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친생부모가 아기를 죽이거나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두지 않고 직접 양육하도록 설득하고 인적, 물적, 제도적 지원
- (2순위) 친생부모가 양육을 포기하면 친생부모가 실명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아기의 입양에 동의하여 국가의 보호에 맡기도록 설득 및 지원
- (3순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아기 양육을 포기하고 실명으로 출생신고도 하지 않기로 하면 그 뜻을 존중하여 익명을 보호하나 아기가 자라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친생부모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음

‘보호출산제가 있어서 아기 양육 포기가 증가하는가?’ 라는 질문은 ‘병원 등 의료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하지 않고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증가하는가?’ 라는 질문 또는 ‘고아원이 있어서 아기 양

육 포기가 증가하는가?’ 라는 질문과 유사합니다. 저는 건강을 잃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병원 등 의료체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 양육을 포기하는 친생부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아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이유에선가 아기를 죽이거나 죽게 내버려두는 친생부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호출산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료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건강 관리를 안하는 사람이 있을 이론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아원이 있어서 아기 양육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이론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호출산제가 있어서 아기 양육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호출산제 운영에 있어 위에서 보여드린 원칙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는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기 임신, 출산 등에 대한 상담을 모두 마쳐야 보호출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위기 임신·출산 등에 대한 상담) ① 출산·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상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1.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사회보장 급여 및 지원 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급여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제13조에 따른 복지자금의 대여, 제1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4조의2에 따른 고용지원 연계,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제17조의6에 따른 건강관리 등 지원, 제18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이용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의료 지원,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라. 「모자보건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4조, 제15조의17, 제15조의18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

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신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 사항

2.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관련 지원 사항

3. 양육 및 친권의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위기임산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

2. 자녀의 생모와 생부를 알 권리의 의미와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밖의 자녀의 권리

3. 자에 대한 인지 및 양육 등 생부의 권리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숙려기간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보호 절차

6. 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및 절차

7. 제17조에 따른 출생증서 공개 청구 요건 및 절차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 산후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지원은 위 제7조에서 상담하면서 안내하는 다른 법령과 제도에서의 지원과 별개의 지원입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8조(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보호 및 지원) 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라 한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입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기임산부의 보호시설 입소에 협조하여야 한

다.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위기 임산부에게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가 위 순서도에서 가급적 YES를 늘리고 NO를 줄이고 위에서 제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 지표를 제안드립니다. 제공해드린 자료의 26면에 있습니다.

1. 보호출산제에 따른 상담 건수와 상담 시간, 횟수
2. 보호출산제에 따라 상담을 받은 후 친생부모가 직접 아기를 양육하기로 한 건수 및 직접 양육시 제공되는 실제적인 지원과 혜택
3. 보호출산제에 따라 상담을 받은 후 실명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아기를 입양보내기로 한 건수
4. 보호출산제에 따라 상담을 받은 후 아기 양육을 포기하고 익명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아기를 국가의 보호로 맡긴 건수
5. 보호출산제에 따라 상담을 받았으나 아기를 국가의 보호로 맡기지 않고 사라진 건수
6. 보호출산제에 따라 입양을 보내거나 아기를 국가의 보호로 맡긴 경우 아기가 입양되는 건수와 입양 시점 및 입양 가정에 대한 사후적인 지원과 혜택
7. 보호출산제에 따라 상담을 받은 친생부모와 아기 사례 유형을 분석하고 해당 유형에 속한 아기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제도 등 개선 방안 도출 및 시행 feedback

[2023년 청주복지포럼 가을호 26면에서 발췌]

보호출산제 도입, 운영시 이러한 지표로 성과를 평가하고 끊임없이 개선 방안을 찾아 노력해야 합니다.

보호출산제 입법은 그동안 법과 국가가 외면하고 있던 사각지대에 있던 생모와 아기들을 법과 국가가 보호하겠다는 것이므로 환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법과 국가의 보호가 실효성이 있도록 하기 위한 원칙과 우선순위, 성과지표를 제안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는 민간의 역할입니다.

2011년 입양특례법 입법으로 법과 국가가 사각지대에 있는 생모와 아기를 외면하고 설령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을 때, 극심한 어려움에 있던 생모와 아기들을 도운 것은 민간에 있던 베이비박스였습니다. 보호출산제 입법으로 법과 국가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지만 법과 국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민간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관악구에 있는 사회봉사 법인에서는 관악구청에 문의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 4곳을 추천받아서 매주 2회 반찬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주 2회 반찬 제공의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그리 크지 않을지도 모르나 매주 2회 방문하여 잘 지내고 있는지 살피고 작게나마 위로와 격려를 하는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민간에서 이렇게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 있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친생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아이들이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가정에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제공해드린 자료 24면, 25면에 있습니다. 기존 논의 중에 잘못된 입양의 문제점과 그로인한 피해를 강조한 논의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피해가 있었으므로 타당한 지적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적이 좋은 입양까지 막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원의 2019년 감사 결과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입양 중심이 아니라 시설 중심으로 유기 아동 보호를 한 문제점이 밝혀졌고 보건복지부도 이를 시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학계나 국민 모두 잘못된 입양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하지만 시설 중심이 아니라 좋은 입양 중심의 아동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설 중심 보호 체계를 취하게 된 이유 중에는 잘못된 입양의 문제점과 그로인한 피해를 강조하는 타당한 지적이 그 타당한 범위를 벗어나서 좋은 입양까지 방해

하고 막게 된 부작용에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양하려는 부모가 나쁜 부모인지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적절한 허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허들 중에 나쁜 부모의 입양을 걸러내는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양을 힘들게 하는 허들이 있다면 없애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입양을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보호출산 이슈는 양면성이 있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분법에서 도출된 해결책은 이분된 한도 안에서는 해결책이 되는 것 같지만 의도적으로 잘라내고 외면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문제를 국가와 법과 민간이 함께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가면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글을 발췌하며 토론문을 마칩니다. 우리나라가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생모와 아기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실현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는 감상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 ...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충족할 만하고, 우리의 무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 현재 인류가 불행한 근본적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인류에게 이러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가 있을 따름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실현되기를 원한다.